

20일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의 가림막에 작가와 시민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길이 1.3km에 달하는 이 아트 펜스는 광주의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을겨울 금남로, 예술로 빛난다

2011년 마지막 날 밤과 내년 1월 1일 새벽까지, 광주 옛 전남도청 별관을 화려한 빛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수가 놓는다. 인근 전일빌딩에도 대형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가 밤새도록 비추는다.

또 옛 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서는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의 아트 펜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이번 플리도 문화 명소를 자리 잡는 등 광주 옛 도심 일대에서 다채로운 예술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오는 29일~2012년 1월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대형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인근 건물들 스크린 삼아 상영하는 '2011 미디어 아트 갈라쇼'를 연다.

광주문화재단은 20일 지역 미디어 작가와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번 행사의 일정 등 1차 계획을 발표했다.

### 옛전남도청 별관·전일빌딩에 대형 미디어아트

### 12월 29일~내년 1월 1일 '빛으로 그린 예술 쇼'

광주 작가들을 비롯해 국내외 유명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관 스크린이 아니라 구도심 건물들 그대로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옛 전남도청 별관, 전일빌딩, 아시아문화마루(콘스호텔 광주) 등 3곳이 전시 공간으로 선정됐다.

또 12월 31일에는 일부 구간의 차량을 통제해 시민 축제 형태로 전시를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시 기간 동안 이들 건물 외벽에는 밤마다 다채로운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고,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만든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시민들의 사안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를 받아 건물 외벽에 실시간으로 소개해 주

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도 결합된다. 재단 관계자는 "국내에 7대밖에 없는 대형 빔프로젝터를 동원해 밤하늘과 건물에 환상적인 빛을 쏘아 올리게 되며, 많은 사람이 밤을 새우며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의 가림막을 아트 펜스로 꾸미는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공공미술화 사업'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림막을 맨션벽과 자석벽, 그래피티 배틀, 만인의 프레임을 4개 구간으로 나눠 공공미술 전문가와 작가 20명, 3000여명의 시민이 함께 대형 벽화를 제작하고

있다. 최근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그림이나 글씨를 그려 나가는 그래피티 배틀 구간이 완료됐다. 낙서처럼 즉흥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피티의 특성상 모습을 드러낸 작품은 자유롭게 화려해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을 둘러싼 길이 1.3km, 높이 6m 규모의 공사 보호막에 그림을 그리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2월 3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 광주 도심의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로젝트로 광주 구도심에 자리 잡은 이번 플리도 이색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동구 대인동 대한생명 사거리, 궁동 김재규경찰학원 앞, 장동로터리 등 10곳에 설치된 이번 플리를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는 문화나들이로 손꼽히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이번엔 '저항의 카운터펀치'다



'광주인권영화제' 24~27일 광주영상문화관



광주인권영화제가 오는 24일~27일까지 광주영상문화관 G시네마에서 열린다.

16번째 맞는 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카운터 펀치, 저항의 맞받아치기'. '불온시대', '희망찬가', '애니로 보는 세상' 등 7개 섹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30여편의 장·단편을 만날 수 있다.

개막작은 '어머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낸 이소선여사의 삶을 담담하게 그린 작품으로 '샘터분식' 등을 만든 태준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폐막작은 '잼 다크 강정(Jam Docu GANGJUNG)'. 경순, 권호, 김태일, 한편 이번 상영작 가운데 일부는 인터파크도서 북앤의 요청으로 24일부터 매주 한편씩 북앤 홈페이지(http://opencast.naver.com/BN586)를 통해서도 상영된다. 상영작은 '감사합니다', '퍼플맨', '5월의 밤', '사랑과 우정 사이', '희망버스'다.

이 제주 강정마을을 각자의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아내는 100일간의 기록이다.

그밖에 4대강 사업의 본질을 알려주는 '강, 원래 프로젝트', 1970년대 등장했다 사라졌던 대한민국 히피 1세대의 싸이키델릭 록 음악을 다시 찾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현영에 감독의 'Now, 머리에 꽃을',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룬 '종로의 기억',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희망버스'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상영작 가운데 일부는 인터파크도서 북앤의 요청으로 24일부터 매주 한편씩 북앤 홈페이지(http://opencast.naver.com/BN586)를 통해서도 상영된다. 상영작은 '감사합니다', '퍼플맨', '5월의 밤', '사랑과 우정 사이', '희망버스'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다양한 부대행사로 마련했다. 개폐막작과 '강, 원래 프로젝트', '용산', '동근 장막' 감독과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개막식과 폐막식에서는 유기농 펄크 가수 '사이'와 '상식이 밴드'가 공연을 갖는다. 또 옛 남광주역사에 마련된 푸른길 기차에서는 '영화산책' 행사도 펼쳐지며 인권과, 영화 퀴즈 등 참여프로그램도 마련됐다. www.gjhrff.com. 전석 무료, 문의 062-529-7576.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소설가 이명환과 떠나는 문학기행 26일 나주 회진일대



(사)광주전남소설가협회(회장 박응순·사진)는 오는 26일 이명환의 소설 '달뜨면 가오리'의 작품 배경이며, 백호 일대의

고향인 나주 회진일대를 탐방하는 문학기행을 떠난다. 소설가 이명환과 함께 떠나는 이번 문학기행은 작품에 대한 설명과 향교, 나주 객사 등 나주 일대의 문화 유적지를 둘러보게 된다. 장편 '달뜨면 가오리'는 황진이를 추모했던 일로 벼슬길에서

쫓겨난 대문장가인 임제의 방랑과 사랑을 그려냈다. 작가는 각종 문헌들의 고증을 통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격정과 울분, 사랑과 이별, 풍류와 시속에서 살다간 그의 생애를 장편 소설로 재구성했다. 문의 010-5622-9285. /오광록기자 kroh@

## 사진으로 말하는 지구의 경고

내년 2월26일까지 내셔널지오그래픽 광주전



북극곰들은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사라지면서 먹을 것이 없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이 치명적인 지구의 경고는 학술 논문이 아니라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기자 폴 니를렌의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구와 생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들이 광주를 찾는다.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판 발행사인 YBM/Si-sa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내년 2월 26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별관 전시실에서 '지구를 담은 사진-Life&Nature'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 파괴되어 가는 환경, 환경 재건을 위한 노력 등의 주제를 담은 180여 점의 사진들이 4개의 일반관과 특별관에서 펼쳐진다.

전시된 작품은 미국 국립지리학회와 콘텐츠와 결합된 이들 작품은 예술적 감동과 학문적인 정보를 함께 전달해준다.

'최초의 컬러 수중 사진'을 비롯해 '알래스다 그레이엄 벨과 관련된 사진' 등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게재돼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진들과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진들도 전시된다. 문의 062-513-79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자음향과 관현악으로 꾸민 '음악의 밤'

나주현대음악제, 24~25일 나주문예회관



강나루 정태봉

나주시와 무지크 바음이 주최하는 제4회 나주현대음악제가 오는 24~25일 오후7시 나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문명의 부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에서는 광주를 비롯,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가들의 창작품을 초연한다. 24일은 '컴퓨터 음악의 밤'으로 꾸며진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공연으로 생소하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사물놀이의 4가지 음향을 사용한 황선영씨의 '전자음향'을 위한 4', 정태영의 '물의 흐름', 전일환의 '전자 음향'을 위한 숲의 변주' 등이 초연된다. 25일은 경찰 교향악단(지휘 임성혁) 초청 '관현악의 밤'으로 꾸며진다. 전남대 출신 강나루씨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소리없는 절구', 김무섭

의 오케스트라(피아노 포함)를 위한 '기억의 유전', 전라도 민요 '농부가'의 선율을 모티브로 한 정태봉(서울대 교수)씨의 교향시 '영산강' 등이 공연된다. 피날레곡은 이만방(숙명여대 교수)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버지의 노래'다. 문의 061-330-8758.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 오찬정식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노사연 Dinner Show

2011 Winter Special ₩165,000원 (VAT 포함)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 블룸 2011. 12. 15(목) 19:00

19:00 입장 및 식사

20:00 디너쇼

21:40 퇴장 (롤케익 증정)

예약 및 문의: 062)228-4711~2 대표전화: 062)228-800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